

오징어·고등어 가격 ‘깡충’...서민 장바구니 부담 가중

광주 콩치·갈치 등 10% 이상 상승
전남 오징어 55%·구운김도 올라
정부, 비축 수산물 2만t 방출키로
오는 27일까지...최대 40% 저렴

오징어와 고등어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어종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추석 명절에는 차례상과 가족 식사 등을 위한 수산물 구매가 늘어나는 만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소비자들 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광주 권역 주요 수산물 중 갈치(중 1마리) 가격은 지난해 7천548원에서 올해 9천원으로 19.2% 올랐다. 명태 냉동 대 1마리도 3천951원에서 4천367원으로 10.5% 상승했다.

고등어 수입산 1순은 9천607원에서 1만1천700원으로 21.8% 올랐으며, 물오징어 중 1마리 역시 3천448원에서 3천970원으로 15.1% 상승했다.

특히 콩치 냉동 수입산 5마리는 지난해 5천900원에서 올해 9천원으로 50.3% 급등하며 조사 품목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구운김 10장도 1천933원에서 2천639원으로 36.1% 올랐다.

전남 권역에서도 일부 수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남에서 고등어 수입산 1순은 지난해 1만500원에서 올해 1만2천700원으로 21.0% 상승했다.

물오징어 중 1마리는 3천211원에서 4천900원으로 56.4% 급등했다. 구운김 10장도 1천670원에서 1천890원으로 13.2% 올랐다.

반면 전남에서는 갈치와 명태, 콩치 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갈치 중 1마리는 9천725원에서 7천400원으로 23.0% 내렸으며, 명태 냉동 대 1마리도 3천700원에서 3천440원으로 7.0% 하락했다. 콩치 냉동 수입산 5마리는 6천500원에서 6천400원으로 1.5% 떨어졌다.

이처럼 지역별·품목별로 가격 등락은 엇갈렸지만 오징어와 고등어, 김 등 소비자들 이 자주

찾는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추석을 약 3주 앞둔 시점에 가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비축 수산물을 대거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27일까지 명태 1만5천700t, 오징어 1천700t, 고등어 1천500t 등 비축 수산물 2만t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방출되는 비축 수산물은 시장 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공급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안태호 기자



녹여먹는 고체 생강차

보관이 가능하고 개별 포장돼 있어 휴대가 편리하고 보관이 쉬워 뜨거운 물에 녹여 마시거나, 우유를 섞어 생강 라떼로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1일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이벤트를 한 뒤 팝업 매장에서 직원 이 고체 생강차를 선보이고 있다. 붉은 생강과 코코넛 수가를 만든 고체 생강차인 '레드진저'는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개별 포장돼 있어 휴대가 편리하고 보관이 쉬워 뜨거운 물에 녹여 마시거나, 우유를 섞어 생강 라떼로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은행, 반도체 클러스터 금융지원 선제 대응

‘Wa 반도체 전담 TF’ 공식 출범
지역 밀착 금융 파이프라인 구축
시설 자금·수출입 금융 등 제공

광주은행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발맞춰 지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대응 조직인 ‘Wa 반도체 전담 TF’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Wa 반도체 전담 TF’는 광주은행의 브랜드 정체성 ‘Wa’와 현장 중심 실행조직의 의미를 결합한 명칭으로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반도체 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앵커뱅크(Anchor Bank) 역할을 수행하며, 산단 조성부터 기업 성장까지 함께 하는 ‘지역 밀착형 금융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유입되는 정책자금과 투자금융의 역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 모델을 구축한다.

전담 대응 조직은 영업전략본부장을 중심으로 학습(Learning)→연구(Research)→정책실행(Action)의 3단계 운영체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 모델을 구축한다. 은행 내 우수 인력을 선발해 외부 전문가와

의 협업, 자체 리서치 및 연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며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등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광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범시민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자체·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향후에는 축적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 특화 금융상품 개발과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금융센터’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금융전문역(RM)과 반도체 산업 전담 심사역 등을 중심으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에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수출입금융 등 성장 단계별 금융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전담 대응 조직 출범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욱 기자

반도체 풀림 완화...ESS 배터리 산업 주목

주간 증시 전망



김 경 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지난 한 주간(8월26일~9월1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1.2% 상승, 코스닥은 1%가량 하락했다. 해당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원, 2조5천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도 3조원을 순매도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으로 기타법인의 순매수가 8조원에 달했다.

지난 한 주간 코스피 지수는 6,600~7,000선을 오르내리며 방향성을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주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이 높아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났으나, 이후 국제유가 안정과 엔비디아 호실적에 힘입어 3거래일 연속 반등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연금 인상에 이어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치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주초에 나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주 코스피는 화요일 ISM 제조업 PMI, 한국 수출입 동향 발표, 수요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와 목요일 비농업 고용자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벤트에서의 핵심은 여전히 AI투자 지속성과 금리 변동성이고 그로 인해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국내 증시가 강한 조정을 경험한 것은 7월이지만, 외국인 매도가 많았던 것은 상반기였다. 2026년 들어 한국 증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로 인해 중단기적 성향의 외국인들은 차익실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장기 투자 성향이 짙은 미국계 외국인 자금은 올해 처음으로 7월에 순매수를 기록하였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지속되는 와중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추는 시기가 코스피가 다시 8,000pt를 넘어서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환율도 우호적이다. 달러 기준 6월 고점 1천559원에서 현재 1천370원까지 12%가량 하락했다. 속도는 분명 빠르나 레벨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팬데믹 이전(2016~2019년) 평균 1천139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20%나 높고, 2024~2025년 평균 1천300원과는 사실상 같은 수준이다. 원화가 강해졌다고만 봐도 과도하게 약했던 원화가 되돌아오는 국면으로 보는 편이 맞을 듯하다. 남은 하반기도 미 연준보다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1천300원 초반 선까지 환율을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그간 환율로 인해 미국 주식 투자를 머뭇거렸던 개인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8월 금동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7월에 이은 이례적인 2번 연속 금리 인상으로 국내 경제가 수출 호조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선제적인 정책대응이라는 판단이다. 하반기에는 내수회복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사상 최대인 가계부채 부문만 유의하면 올해 말 한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해 보인다.

최근 반도체 풀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눈에 띄는 분야는 ESS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산업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중국 견제 속 수혜가 있을 분야로, 최근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전력 시스템 수입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하며 미국 ESS 업체들이 앞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수입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까지 관련 재고는 소진하 내년부터는 설치량 기준 K배터리의 비중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 TECH 분석 기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ESS 배터리 해외 계약 규모는 28GWh에 달했는데 이중 북미는 2%도 안되는 5GWh에 불과하다. 기존에 중국 배터리 의존도가 높았던 미국의 탈중국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하고, 그 대체재는 국내 2차전지 기업들밖에 없다.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가동 이 점차 많아지면서 늘어날 배터리 수요가 3년 전 전기차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 되길 기대해 본다.

여름철 침수대비 행동요령

침착하게 # 안전하게 # 신속하게
보행 시, 침수지역 및 하수도, 맨홀 근처 접근 금지
지하공간 이용 시,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
차량 이용 시, 지하차도 진입 금지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2026 캐논 여름 프로모션

여름의 완성, 캐논으로부터

추억하고 싶은 모든 순간, 결국 사진 결국 캐논

올여름, 단 한 번의 구매 찬스!
인생샷은 캐논으로, 사은품은 역대급으로!

삼성·국민·하나카드
12개월 1무이자

구매기간 2026년 7월 1일(수) ~ 8월 31일(월)

정품등록 및 응모기간 2026년 7월 1일(수) ~ 9월 7일(월)

캐논스토어 본점 | 062) 522-2000
지점 | 062) 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2로 54 (금호월드1층 139호)

광주광역시 지정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관 포 개 발 (주)한양주택관리

당사는 대표자의 오랜 주택관리사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빌딩·오피스텔·주상복합·원룸등 모든 건물의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수납·연체자관리·청소·경비·승강기·소방·물탱크 청소·소독 등의 업무를 직접 대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이범석 (주택관리사)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30번길 8(문흥동)
대표전화 | 062.262.1945

사업내용
건물관리업
빌딩·공동주택·오피스텔·원룸
청소용역업
경비용역업
승강기관리업
방역소독·물탱크청소업